

# 유형별 가계소득과 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주거보유형태별 분석-

## The Influences of Household Income and Asset in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according to Housing Tenure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조교 김혜련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최현자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ssistant : Hye-Ryun Kim*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yuncha Cho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influences of different types of household income and asset in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of homeowners and lessees with deposit.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the 1996 Korea Household Panel Study. 1,512 households data were select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age, one-way ANOVA, crosstab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how-t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re were the differences between three groups in the expenditure levels of each consumption category and the shares of each consumption category of total expenditures. (2) The change of labor income influenced more significantly consumption expenditures of homeowners and lessees with deposit, compared to changes of different types of household income. Also homeowners and lessees with deposit changed their consumption expenditures in different ways to changes of various types of household income. (3) Homeowners increased more significantly their consumption expenditures to increase of net asset than lessees with deposit.

## I. 서론

우리 나라는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으로 인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와 함께 가계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 또한 가파른 신장세를 보여왔다. 우리 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를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하여 보면, 1990년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가계소비지출이 지난 1984년에 비해 명목기준으로 108% 늘어났으며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증가도 무려 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일본, 독일(서독)의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명목기준으로 각각 44%, 17%, 20% 증가하였고 실질증가율로는 18%, 8%, 14%로 늘어난 데 그쳐 한국가계의 소비지출 증가가 더욱 급속히 이루어져 왔던 것을 알 수 있다(박상학, 1992).

이러한 높은 소비성향은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1980년대 말에 발생한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급등에 따른 가계자산의 증가에도 기인한다. 가계의 소비는 현재와 미래의 근로소득 뿐 아니라 과거에 축적된 자산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Modigliani & Brumberg, 1962). 특히 자산축적 및 상속에 대한 가치가 높고, 1980년대 말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급등을 경험한 우리 나라의 경우 가계소비를 추정함에 있어 가계자산변수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양세정·강미나, 1995). 가계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인해 이자, 임대소득, 배당금 등과 같은 파생소득과 매매차익 등의 자본이득을 얻게 되는데 실제로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난 30년간의 변화양상을 비교해 보면, 지난 30년간 근로소득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기타소득의 비중은 경기변동에 따라 연도별로 약간의 기복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가계소득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각기 다른 유형별 가계소득이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가 제기된다. Holbrook & Stafford(1971)는 유형별 가계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모두 같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 행동 모델의 중요한 근원적 관계를 간과하

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다를 것을 입증하였으며, 생애주기가설에 행동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이론을 전개한 Shefrin & Thaler(1988)도 원천이 다른 소득은 각기 다른 심리계정으로 배분되고 소비자는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쉽게 쓰고자 하게 되어, 각기 다른 형태의 소득은 다른 한계소비성향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서구사회와는 다른 소비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연구되어 온 결과가 우리 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서구사회와 달리 자가보유에 대한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가계는 자가를 보유하기 위한 자금마련으로 인해 자가보유가계와는 다른 소비지출 행동을 보이게 된다. 가계의 소비지출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주거보유형태는 가계의 선호를 나타내는 하나의 가계특성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거보유형태에 따라 가계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가계의 소비지출행동을 주거보유형태에 따라 분석하여 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보유형태에 따라 가계를 자가보유가계, 전세거주가계, 및 월세거주자가계로 구분하여 가계의 소비지출에 유형별 가계소득과 자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계의 소비지출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생애주기가설과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

Modigliani & Brumberg(1962)와 Ando &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소비의 흐름은 대체로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소득의 흐름은 점차 상승하여 장년기 또는 은퇴직전에 절정을 이루다가 다시 하락하는 포물선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가계는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소득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요구와 재정복지를 달성하려는 요구간에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미래의 재정적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저축과 소비를 한다고 가정하여, 현재와 미래의 근로소득 뿐 아니라 과거에 축적한 자산에 의해서도 가계의 소비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생애주기가설 역시 소비를 설명하는 소득으로 총기대소득을 사용하는데, 항상소득가설과는 달리 개인의 예상되는 총기대소득의 현재가치를 잔여 생애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소비한다고 본다. 또한 이 가설은 항상소득가설이 자산을 불분명하게 항상소득에 포함시키고, 실제로 이용하기 곤란한 항상소득이나 임시소득의 개념으로 이론을 전개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산을 소비함수의 설명변수로 명확히 투입하였다. 이 가설에 의한 가계의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다.

$$C = c(A, Y) \dots \dots \dots (1)$$

- 단, C : 가계소비
- A : 가계의 보유자산
- Y : 비자산소득

생애주기가설에서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완전한 의사결정을 하며, 이미 전생애소득이 계산되어 연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현재 주어진 연금 가치만 사용하면 된다(the first best rule)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상의 규칙은 소비자들이 공존하면서도 상호 일관되지 않는 두개의 선호체계(the planner: 이성적인 면, the doer: 감성적인 면)를 지니고 있고, 미래기대소득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추상적인 개념이다. 실제로 소비자는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선호체계로 인해 내적갈등(예: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간의 결정)을 하게 되며 이러한 최적점을 찾지 못하므로 결국 차선책을 선택하게 된다. Shefrin & Thaler (1988)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제학에서는 간과된 3개의 중요한 행동학적 특성인 절제(self-control), 심리계정(mental accounting), framing을 생애주기가설에 포함시켜야 소비자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에서는 소비자

란 현재소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미래소비를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의지노력 즉 심리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계가 지닌 부는 얼마나 쉽게 현금화하여 현재소비지출에 이용될 수 있는가에 따라 현재소득계정, 자산소득계정, 미래소득계정이라는 3개의 심리계정<sup>1)</sup>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 가계는 서로 다른 심리계정에 그들의 부를 다양하게 배분하며 이들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쉽게 쓰고자 한다. 즉 각기 다른 형태의 소득 혹은 자산은 다른 한계소비성향을 지니게 되어 동일한 화폐량이라도 어떤 형태로 유입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은 달라지게 된다.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에 의한 가계의 소비함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2)와 같다. 이때 각 심리계정의 한계소비성향의 크기는 현재소득계정(I) > 현재자산계정(A) > 미래소득계정(F)이며, 심리비용의 크기는 미래소득계정(F) > 현재자산계정(A) > 현재소득계정(I)이다.

$$C = c(I, A, F) \dots \dots \dots (2)$$

- 단, C : 가계소비
- I : 가계의 현재소득
- A : 가계의 현재자산
- F : 가계의 미래소득

이 연구에서는 3개 심리계정의 한계소비성향이 다르다는 가설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없었으므로, 직접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 간단한 조사를 하였다.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선정된 Santa Clara University의 MBA학생들에게 3개의 질문을 하고 각 질문을 통해 \$2,400라는 금액에 대한 각기 다른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다. 먼저 \$2,400를 정규소득으로 매달 \$200씩 받는 경우와 \$2,400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 그리고 5년후에 받는 소득의 현재가치가 \$2,400인 경우로 나누어 각 유형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 결과, \$2,400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

1) 심리계정이 반드시 이와같이 3개의 계정으로만 나뉘는 것은 아니며 연구자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A)의 한계소비성향은 그 금액이 커서 자산으로 축적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규소득(I)의 한계소비성향보다 작았으며, 5년후에 \$2,400를 받는 경우(F)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작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에 따라 자본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근로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작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9이고, 자본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7이라는 Holbrook & Stafford (197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동일한 화폐량이라도 소득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은 달라진다는 가설은 완전한 검증이 뒷받침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증거들에 의해 강력히 지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소득과 자산은 가계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나타내며, 가계의 총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의 유형(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 2. 소비지출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 1) 주거보유형태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Paulin(1995)는 미국의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를 이용하여 자가보유가계와 월세거주가계의 지출행동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가보유가계와 월세거주가계는 소득을 비롯한 다른 가계특성들이 동일할 때에도 각 비목들에 대해 다른 지출행동을 보였고, 나아가 각각의 가계특성들이 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다르게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 몇 가지 비목들에 대한 소득탄력성도 주거보유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경우 월세거주가계의 소득탄력성이 높았고 교통비와 교양·오락비의 경우 자가보유가계의 소득탄력성이 높았다.

편모가족과 양부모가족간의 지출행동 차이를 분석한 Horton & Harfstrom(1985)의 연구에 의하면, 두 가족 모두 자가보유가계가 월세거주가계보다 식료품비, 내식(肉食)비, 그리고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비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연구중 류종구(1991)는 1984년 및 1989년 두 해의 「도시가계연보」 조사자료를 가지고 주택의 소유 유무가 도시근로자 가구들의 소비지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소비성향은 월세입주자가 자가소유자보다 더 높았으나, 소비의 소득탄력성은 자가소유자 가구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특히 자가소유자들은 월세입주자에 비해 내구소비재의 구입이나 문화비에 더 탄력적이었다. 이성민(1992)의 연구에서도 가계소득과 함께 주거보유형태가 다른 설명변수들에 비해 소비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보유가계가 전세거주가계나 월세거주가계에 비해 외의(外衣), 교양 오락비, 일반가구, 그리고 개인교통에 대한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숙재·정순희(1995)의 연구에 의하면, 자가보유가계는 월세거주가계보다 외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그리고 피복 및 신발비에 더 많이 지출하고 주거비에는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거주가계는 월세거주가계에 비해 교육비와 교통통신비에 더 많이 지출하고 주거비에는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 나라 가계의 경우 주거보유형태가 소비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계의 소비지출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소득은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 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가계의 소득을 하나의 설명변수로 하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을 유형별로 나누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먼저 가계의 소득을 하나의 변수로 하여 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고(김정훈, 1984; 윤정혜, 1984; 김영숙, 1989;

김정숙, 1992; 박대근·이창용, 1996; Projector, 1968), 김기욱·이승신(1990)을 비롯한 여러 연구들(이성민, 1992; 정영숙, 1993; 양세정, 1998)에서는 월평균 총소득이 소득의 단위로 사용되었다. 또한 단기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가계의 총소비지출액을 항상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한 연구들(김영숙·왕인숙, 1989; 문숙재·정순희, 1995; 성영애·양세정, 1997; Dardis, Derrick & Lehfeld, 1981; Wagner & Hanna, 1983; Paulin, 1995)이 있다.

다음으로 소득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들 중, Holbrook & Stafford(1971)는 1960년에서 1962년까지의 패널연구를 통해 가계의 소득을 가구주의 근로소득, 부인 및 기타 가구원들의 근로소득, 이전소득, 자본-근로 혼합소득(mixed capital-labor: income) 구체적으로 농부가 아닌 사람의 농가소득,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의 자영업소득, 하숙업으로부터의 소득), 그리고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부인 및 기타가구원들의 근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대부분의 U.S data에서 얻어진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 값인 0.9와 거의 같았고, 나머지 3개의 유형별 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모두 0.9보다 작았다.

김정숙(1992)은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각각의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근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기타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더 큰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기타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도 꽤 높게 나타났다. 이 때 기타소득에는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등의 자산소득과 부업, 보조금,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 3) 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설과 항상소득가설에서 자산은 생애소득이나 항상소득을 추정하는 기초로 사용되었다. 많은 연구들(Modigliani·Ando, 1963; 양세정·강미나, 1995; 박대근·이창용, 1996; 차은영, 1996)이 소비함수에 비인적자산을 개별변수로 포함하였고, 자산변수들은 소득효과와는 별개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iedman(1957)은 비인적 형태의 총자산이 많을수록,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가 적기 때문에 항상소득의 소비성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 또한 Projector(1968)의 연구에서는 순자산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만, 생애주기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35~44세 연령집단이 순자산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순자산의 계수가 유의하였지만, 다른 설명변수인 가처분소득의 계수보다는 작았다.

양세정·강미나(1995)는 자산을 금융자산과 토지자산으로 구분하여 자산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처분소득탄력성이 토지자산탄력성보다 높기는 하지만 지출비목간 탄력성 규모에 의한 순위는 양 탄력성에 대해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토지자산가치의 상승이 가계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금융자산의 상승은 세부지출비목 어느 것도 지출규모에 있어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주거보유형태에 따라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자산의 규모 및 소비지출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유형별 가계소득과 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주거보유형태별로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자산의 규모와 소비지출의 규모 및 비목별 구성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주거보유형태별로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에서 살펴본 이론적인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가계의 소비는 소득과 자산

뿐만 아니라 가계의 선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Ferber(1973)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소비함수에 관한 모든 횡단분석에서 소비자의 선호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포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계의 선호를 나타내는 변수로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거주지역을 본 분석에 포함하였다. 유형별 가계소득 및 자산과 소비지출간에는 양대수(double log)선형 관계가 있음을 가정하고<sup>2)</sup>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소비지출간에 선형관계가 있음을 가정하였다.

$$\ln C_i \text{ \& } \ln C_{ij} = a_0 + a_1 \ln Y_{Li} + a_2 \ln Y_{Ai} + a_3 \ln Y_{Ti} + a_4 \ln Y_{Oi} + a_5 \ln ASSET_i + a_6 SIZE_i + a_7 AGE_i + a_8 SEX_i + a_9 EDU1_i + a_{10} EDU2_i + a_{11} EDU3_i + a_{12} OCC1_i + a_{13} OCC2_i + a_{14} OCC3_i + a_{15} REG1_i + a_{16} REG2_i + a_{17} REG3_i + \epsilon_{ij}$$

회귀계수  $a_1 \sim a_5$ 는 가계의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자산에 대한 소비지출의 탄력성을 나타내며  $a_8 \sim a_{17}$ 은 각 변수들의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회귀계수이며 회귀식을 추정함에 있어서 종속변수에 자연대수를 취하였기 때문에 가변수의 회귀계수는 역로그(anti-log)를 취하여 한계효과로 변환시켰다.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총소비지출은 가계의 월평균소비지출에 12를 곱하여 연간소비를 환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소비지출 비목은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피복 및 신발비, 교양·오락비, 교육비, 전기통신 및 연료비, 의료비, 경조비, 그리고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등의 10개 항목으로 연간지출액의 자연대수형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가계소득유형은 연간 근로소득( $Y_{Li}$ ), 자산소득( $Y_{Ai}$ ), 이전소득( $Y_{Ti}$ ) 기타소득( $Y_{Oi}$ )으로 구분하였다. 근로소득은 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농업소득, 비정규근로소득, 및 부업소득으로 구성되며 자산소득은 금융자산소득과 부동산자산소득의 합이

며 이전소득은 연금과 보조금을 의미한다. 자산( $ASSET_i$ )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으로 정의하였다. 총소비지출액 및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유형별 가계소득 및 자산은 자연대수형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값이 '0'인 것은 '1'로 치환하였다.

가계의 선호를 대변하는 변수로 포함된 가구원수( $SIZE_i$ )와 가구주 연령( $AGE_i$ )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가구주 성별( $SEX_i$ ), 가구주 교육수준( $EDU1_i$ :초졸;  $EDU2_i$ :중졸;  $EDU3_i$ :대졸이상), 가구주 직업( $OCC1_i$ :자영업자;  $OCC2_i$ :농림수산업자;  $OCC3_i$ : 비정규직, 미취업, 주부, 연로, 기타), 거주지역( $REG1_i$ : 5대도시;  $REG2_i$ : 중소도시;  $REG3_i$ : 郡部지역)은 각각 남자, 고졸, 봉급생활자 그리고 서울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가변수 처리하였다.

## 3.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6년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 Household Panel Study: KHPS)」의 원자료이다. 대우 경제 연구소가 실시한 KHPS는 동일한 가계 및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 및 소비, 근로 행위 등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가구 및 개인들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 1993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패널조사(panel study)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다단계 층화확률표본추출 방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에 의해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4차 조사자료의 가구용 파일로서 가구원 상황과 가구용 설문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가구용 파일에는 가구주 교육수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가구-개인용 파일에서 이 변수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구용 파일의 총 표본 2,833가구 중에서, 한 가계의 가구주가 2명이상이거나, 주거보유형태가 불확실한 가계와 농업소득의 수입이 비용보다 적

2) 유형별 가계소득 및 자산과 소비지출간의 관계에서 양대수형을 취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함을 반영하였다.

어서 근로소득이 “-”이거나 총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순자산이 “-”인 가계를 제외하였으며,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순자산의 극단치(outlier)를 가진 가계를 제외하여 총 1,512가구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가계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경제적 특성과 가구원수 및 가구주 연령에 대한 집단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그리고 거주지역에 대한 주거보유형태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순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가보유가계, 전세거주가계, 월세거주가계의 세 집단에 대해 유형별 소득과 순자산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때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 또한 세 집단간에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Chow-test<sup>3)</sup>를 실시하였다.

5.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보유형태별 특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총 분석대상가계는 1,512가계였으며, 이 중 65.1%인 985가계가 자가보유가계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28.5%인 431가계가 전세거주가계였으며 나머지 6.3%인 96가계가 월세거주가계였다. 주거보유형태별 가계들은 가구주 성별을 제외한 모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주거보유형태별로 종합해 보면, 다른 두 집단과는 달리 자가를 보유한 가계가 평균 가구원수와 가구주 연령이 많고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으며, 가구주 직업이 농업수산업자인 가계의 97.9%를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郡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도 27.3%나 되었다. 전세거주가계의 경우는 가구주 연령의 분포 중 80.7%가 30~40대였고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인 비율이 76.1%나 되었고 대졸 이상도 25.8%나 차지하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았다. 또한 대부분 가구주가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이고 서울이나 5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이거나 직업이 자영업이나 기타(비정규직, 미취업, 주부, 연로, 기타)인 경우 월세에 거주하는 가계의 비율이 높았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순자산의 규모 및 소비지출패턴

1)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순자산의 규모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순자산의 규모는 <표 2>와 같다.

먼저 연평균 총 가계소득은 자가보유가계가

3) Chow-test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세 집단을 같은 회귀식으로 구했을 경우,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의미있게 서로 다른지를 검증해 준다(Gujarati, 1988).

$$F = \frac{[S - (S_1 + S_2 + S_3)]/k}{(S_1 + S_2 + S_3)/(N_1 + N_2 + N_3 - 3k)} \sim F(k, N_1 + N_2 + N_3 - 3k)$$

S : 전체집단의 자승합(residual sum of squares)

S<sub>1</sub>, S<sub>2</sub>, S<sub>3</sub> : 각각 집단 1, 집단 2, 집단 3의 자승합(residual sum of squares)

k = 독립변수의 수 + 1

N<sub>1</sub> = 집단 1의 표본수

N<sub>2</sub> = 집단 2의 표본수

N<sub>3</sub> = 집단 3의 표본수

〈표 1〉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독립변수		전체가계	자가보유가계	전세거주가계	월세거주가계	차이검증
가구원수 <명(%)>	2인이하	213(14.1)	161(16.3)	33( 7.7)	19(19.8)	(평균가구원수) F = 3.07*
	3인	248(16.4)	148(15.0)	83(19.3)	17(17.7)	
	4인	690(45.6)	402(40.8)	246(57.1)	42(43.8)	
	5인	238(15.7)	175(17.8)	51(11.8)	12(12.5)	
	6인이상	123( 8.1)	99(10.1)	18( 4.2)	6( 6.3)	
	평 균	3.88	3.92	3.85	3.60	
가구주연령 <세(%)>	29세 이하	36( 2.4)	10( 1.0)	22( 5.1)	4( 4.2)	(평균가구주연령) F = 116.38***
	30~39세	531(35.1)	247(25.1)	244(56.6)	40(41.7)	
	40~49세	405(26.8)	273(27.7)	104(24.1)	28(29.2)	
	50~59세	249(16.5)	202(20.5)	36( 8.4)	11(11.5)	
	60세 이상	291(19.2)	253(25.7)	25( 5.8)	13(13.5)	
	평 균	46.66	49.95	39.90	43.26	
가 구 주 성 별	남자	1409(93.2)	918(93.2)	406(94.2)	85(88.5)	$\chi^2 = 3.96$
	여자	103( 6.8)	67( 6.8)	25( 5.8)	11(11.5)	
가 구 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329(21.8)	269(27.3)	40( 9.3)	20(20.8)	$\chi^2 = 73.30***$
	중졸	246(16.3)	166(16.9)	63(14.6)	17(17.7)	
	고졸	625(41.3)	359(36.4)	217(50.3)	49(51.0)	
	대졸이상	312(20.6)	191(19.4)	111(25.8)	10(10.4)	
가 구 주 직 업	봉급생활자	630(41.7)	378(38.4)	228(52.9)	24(25.0)	$\chi^2 = 143.17***$
	자영업자	415(27.4)	233(23.7)	132(30.6)	50(52.1)	
	농림수산업자	192(12.7)	188(19.1)	3( 0.7)	1( 1.0)	
	기 타	275(18.2)	186(18.9)	68(15.8)	21(21.9)	
거주지역	서 울	398(26.3)	167(17.0)	190(44.1)	41(42.7)	$\chi^2 = 169.52***$
	5대 도시	358(23.7)	240(24.4)	105(24.4)	13(13.5)	
	중소도시	447(29.6)	309(31.4)	107(24.8)	31(32.3)	
	郡部지역	309(20.4)	269(27.3)	29( 6.7)	11(11.5)	
계		1,512(100.0)	985(100.0)	431(100.0)	96(100.0)	

\*p &lt; .05, \*\*p &lt; .01, \*\*\*p &lt; .001

〈표 2〉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순자산<sup>4)</sup>

(단위 : 만원, 명)

독립변수		전체가계	자가보유가계	전세거주가계	월세거주가계	차이검증
가계 소득	근로 소득	평 균 표준편차 2,231.91 1,342.7	2150.7 1416.0	2,435.0 1,154.4	2,153.5 1,270.0	F = 6.95***
	자산 소득	평 균 표준편차 155.8 476.6	170.9 476.7	127.4 468.8	127.5 507.6	F = 1.43
	이전 소득	평 균 표준편차 24.2 87.7	33.1 101.7	7.4 47.5	8.8 51.7	F = 14.70***
	기타 소득	평 균 표준편차 167.5 468.1	148.6 430.8	208.8 535.4	175.8 503.9	F = 2.50
순 자산	평 균 표준편차 3,194.9 4,888.4	3,605.4 5,318.3	2,512.5 3,920.2	2,048.0 3,516.5	F = 10.44***	

\*p &lt; .05, \*\*p &lt; .01, \*\*\*p &lt; .001



2,503.3만원, 전세거주자계가 2,778.6만원 그리고 월세 거주자계가 2,465.6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전세거주자계가 2,435.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가보유자계는 2,231.9만원으로 전세거주자계보다 작았다. 월세거주자계는 1,753.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자가보유자계의 근로소득이 전세거주자계보다 낮은 것은 자가보유자계에 전세 및 월세 거주자계와는 달리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계가 25.7%나 되고, 전체가계의 12.7%에 해당하는 농림수산업자의 97.9%가 자가보유자계에 속하는데 이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1,192.0만원으로 현저히 낮음에 기인한다. 연평균 이전소득을 살펴보면 자가보유자계가 33.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거주자계

와 월세거주자계는 각각 7.4만원과 8.8만원으로 자가보유자계보다 현저히 작았다. 이는 이전소득이 연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가보유자계의 가구주 연령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가계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평균 자산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 주거보유형태별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순자산의 경우 자가보유자계가 평균

- 4) 전체가계 중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을 보유한 가계의 비율은 각각 95.3%, 23.7%, 15.1%, 17.7%이며, 그들의 평균은 각각 2,342.2만원, 656.1만원, 159.1만원, 948.5만원이었다.
- 5) 전체가계 중 25.9%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평균은 111.3만원이었다.

<표 3>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 규모<sup>5)</sup>

(단위 : 만원)

종 속 변 수		전체가계	자가보유자계	전세거주자계	월세거주자계	차이검증
총소비지출	평 균	1,686.9	1,691.0	1,683.6	1,660.2	F = 0.04
	표준편차	1,013.0	1,085.7	827.8	1,004.2	
식료품비	평 균	386.0	372.7	415.3	391.1	F = 6.43**
	표준편차	206.6	215.7	186.1	186.2	
의 식 비	평 균	40.5	38.8	47.4	27.4	F = 4.16*
	표준편차	69.0	73.3	61.3	52.6	
주 거 비	평 균	133.0	101.9	114.5	287.6	F = 49.29***
	표준편차	174.3	94.5	182.1	291.4	
피복 및 신발비	평 균	101.7	105.4	100.8	69.4	F = 6.03**
	표준편차	94.9	98.7	92.8	47.9	
교양·오락비	평 균	70.3	71.0	70.0	63.7	F = 0.18
	표준편차	107.0	119.0	79.6	88.2	
교육비	평 균	354.7	403.7	285.9	239.8	F = 13.50***
	표준편차	392.8	462.3	237.4	169.3	
전기통신 및 연료비	평 균	103.9	106.2	100.6	94.9	F = 2.72
	표준편차	57.0	53.6	65.7	45.6	
의료비	평 균	50.5	54.9	43.4	37.5	F = 3.57*
	표준편차	88.0	88.9	88.0	75.1	
경조비	평 균	87.2	97.0	69.7	57.4	F = 23.53***
	표준편차	78.2	85.5	58.7	39.7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평 균	28.8	31.7	26.4	9.6	F = 3.06*
	표준편차	87.1	96.5	70.4	34.2	

\*p < .05, \*\* p < .01, \*\*\* p < .001

3,605.4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전세거주자계가 2,512.5만원, 월세거주자계가 2,048.0만원이었다.

## 2)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소비지출패턴

### (1)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소비지출의 규모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연평균 총소비지출액을 살펴보면, 전체가계의 경우 1,686.9만원<sup>6)</sup>이었으나 주거보유형태별로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비목별 가계소비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식료품비의 경우 자가보유가계가 전세거주자계와 월세거주자계보다 약간 작았고, 외식비의 경우에는 전세거주자계가 47.4만원으로 월세거주자계보다 1.7배나 많았다. 주거비는 월세거주자계가 연평균 287.6만원으로 자가보유가계와 전세거주자계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피복 및 신발비, 교육비, 의료비, 경조비 그리고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의 경우 자가보유가계가 가장 많이 지출하고 월세거주자계가 가장 적게 지출하였다. 특히 피복 및 신발비와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의 경우 월세거주자계는 자가 및 전세거주자계보다 월등히 낮았고, 교육비와 경조비의 경우에는 자가보유가계가 전세거주자계의 1.4배, 월세거주자계의 1.7배만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 (2)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비

가계소비지출의 절대액수는 소비패턴의 차이보다 단지 소득의 차이를 나타내기 쉬운데 반해, 소비항목의 총소비지출에 대한 상대적 지출비중은 소득의 효과를 배제하여 실제 소비패턴의 차이를 나타내기 에 적합하고 또 시간의 흐름에도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측정된 소비패턴이 보다 신뢰할 만하다. 또한 총지출에 대한 비중은 그 자체로 소비의 교량(較量)관계를 보여줄 수 있고, 소비수준 뿐 아니라 소비의 균형을 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소비패턴을 분석하는데 더 적합하다(손상희, 1993).

<표 4>는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각 비목별 지출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나타낸다.

먼저 주거비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월세거주자계가 다른 두 집단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월세거주자계의 높은 주거비 비중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들은 식료품비 다음으로 주거비에 그들의 예산을 할당하면서 다른 비목들에 대한 지출을 필연적으로 줄이

6) 이 값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996년 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총소비지출액인 1,561.3만원보다 큰 값으로, 본 연구의 표본가구 총소비지출수준은 전국 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수준보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7) 총소비지출을 각 비목들의 합이 아닌 연평균 총소비지출액으로 하였으므로 구성비의 합이 100.0보다 작다.

<표 4>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 구성비<sup>7)</sup>

(단위 : %)

종속 변수	자가보유가계		전세거주자계		월세거주자계		차이검증
	구성비	순 위	구성비	순 위	구성비	순 위	
식료품비	26.1	1	28.0	1	28.2	1	F=2.43
외 식 비	2.6	9	3.1	8	1.8	9	F=2.79
주 거 비	6.7	6	6.5	4	21.9	2	F=34.53***
피복 및 신발비	6.9	5	6.2	5	4.5	6	F=9.31***
교 양 · 오락비	4.5	8	4.5	7	4.3	7	F=0.65
교 육 비	23.2	2	18.1	2	15.5	3	F=8.23***
전기통신 및 연료비	8.9	3	7.1	3	8.3	4	F=7.65***
의 료 비	4.8	7	3.1	8	2.6	8	F=8.81***
경 조 비	7.8	4	4.8	6	5.1	5	F=21.82***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2.0	10	1.7	10	0.8	10	F=2.24

\*p < .05, \*\*p < .01, \*\*\*p < .001

는 것으로 보인다.

자가보유가계인 경우 식료품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교육비인데, 이들의 교육비 비중은 전세 및 월세거주가계의 1.3배,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자가보유가계의 교육비에 대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가보유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48.2%<sup>8)</sup>가 가구주 연령이 40~50대로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돕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이나 지출 규모가 큰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지출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주거안정으로 인해 전세나 월세거주가계보다 여유자금이 더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월세거주가계의 교육비의 비중이 다른 두 집단보다 월등히 작은 이유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로 인해 예산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덜 필수적인 비목에 대한 지출을 필연적으로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존유지를 위한 필수비목이 아닌 교육비를 줄이게 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자가보유가계와 전세거주가계의 소비 지출 비목별 구성비와 순위는 비슷한 반면, 월세거주가계는 다른 두 집단과는 달리 식료품비 다음으로 주거비에 가장 많이 할당하면서 선택적인 비목 보다는 필수적인 비목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이처럼 월세거주가계는 월세의 부담으로 인해 균형 있는 소비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 2. 회귀식의 검증결과

주거보유형태에 따른 지출비목별 회귀분석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전세거주가계의 주거비와 월세거주가계의 교양·오락비, 의료비, 경조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이 유형별 가계소득과 순자산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그리고 거주지역이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로

<표 5> 지출비목별 회귀분석 결과 요약

지출비목		Adj R <sup>2</sup>	F-test	Chow-test (F 값)
총소비지출	자가	.55	71.74***	8.00***
	전세	.35	14.76***	
식료품비	자가	.47	51.60***	32.07***
	전세	.21	7.51***	
외 식 비	자가	.21	15.99***	2.89***
	전세	.17	6.00***	
주 거 비	자가	.11	3.62***	30.142***
	전세	.06	1.53	
피 복 및 신 발 비	자가	.26	20.19***	4.06***
	전세	.11	3.92***	
교 양 · 오 락 비	자가	.15	9.67***	4.09***
	전세	.16	3.89***	
교 육 비	자가	.13	6.58***	6.12***
	전세	.11	4.78***	
전 기 통 신 및 연 료 비	자가	.23	18.69***	2.68***
	전세	.18	6.54***	
의 료 비	자가	.04	3.04***	2.16**
	전세	.03	1.80*	
경 조 비	자가	.11	7.82***	4.06***
	전세	.11	3.86***	
가 구 집 기 및 가 사 용 품 비	자가	.06	4.61***	2.27***
	전세	.11	4.10***	

\*p < .05, \*\*p < .01, \*\*\*p < .001

본 분석에 포함되었다.<sup>9)</sup> 본 연구모형이 월세거주가계의 교양·오락비, 의료비, 경조비 그리고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에 유의하게 적합하지 않는 이유는 자가보유가계나 전세거주가계에 비해 월세거주가계의 표본수가 적기 때문이거나, 월세거주가계는 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예산제약과 다른 집단과는 구별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이 집단의 소비선호를 반영하는 보다 다

8) 가구주 연령이 40~50대인 가계의 비율은 전세거주가계의 경우 32.5%이고 월세거주가계의 경우는 40.7%이다.

9)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가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가 아니므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자에게 문의바람.

양한 요인에 의해 소비패턴이 형성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월 세거주자계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자가보유가계와 전세거주자계에 대한 회귀분석만을 실시하였다.

주거보유형태별로 각각의 독립변수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의미 있게 서로 다른지 검증하기 위해 Chow-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소비지출비목에서 두 집단간에 가계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즉 각 가계의 특성이 각 비목에 미치는 영향력의 양상은 자가보유가계와 전세거주자계간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순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유형별 가계소득과 순자산이 소비지출 비목들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주거보유형태별로 살펴 보았다.

〈표 6〉은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득탄력성과 순자산탄력성을 나타낸다.

**1)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유형별 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먼저 자가보유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과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목들이 근로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주거비가 근로소득의 증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가보유가계의 주택설비에 필요한 설비재료구입이나 설비수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계소비지출의 비목별 구성비에서 식료품비 다음으로 지출이 많았던 교육비는 근로소득의 증가에 따라 다른 비목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비목들은 외식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교양·오락비, 식료품비, 경조비, 그리고 전기통신 및 연료비 순으로 근로소득의 증가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자산소득의 변화에는 총소비지출과 전기통신 및 연료비, 그리고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가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가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선택적인 비목이 자산소득의 증가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득탄력성 및 순자산탄력성

독립 변수	총소비지출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피복 및 신발비				
	자가	전세	자가	전세	자가	전세	자가	전세	자가	전세			
가계 소득	근로소득	.16***	.25***	8.9E-02***	.14***	.11**	.19	.15***	.15	1.0E-01***	.22***		
	자산소득	2.5E-02***	4.1E-04	1.6E-03	1.3E-02	3.0E-02	1.6E-02	3.2E-02	-2.1E-02	1.6E-02	1.4E-02		
	이전소득	-1.1E-02	2.2E-02	-2.2E-02	-2.6E-02	2.6E-02	.10	8.8E-02**	3.0E-02	-1.8E-02	-5.2E-02		
	기타소득	-5.3E-03	1.3E-02	-5.2E-03	-2.1E-02	5.1E-03	5.0E-02	4.0E-03	4.6E-02	5.0E-03	2.7E-02		
순 자산	3.4E-02**	3.3E-03	1.7E-02	2.2E-02	8.8E-02*	.15	5.3E-02	-1.0E-02	3.8E-02*	1.8E-02			
독립 변수	교양·오락비		교육비		전기통신 및 연료비		의료비		경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자가	전세	자가	전세	자가	전세	자가	전세	자가	전세	자가	전세	
가계 소득	근로소득	9.9E-02***	.34***	.12***	.46***	5.4E-02***	4.9E-02*	2.1E-02	-3.9E-02	7.1E-02***	.17***	.11**	.31**
	자산소득	9.0E-03	3.2E-02	-1.0E-02	1.5E-02	1.8E-02***	1.6E-02	1.8E-03	-4.2E-02	3.0E-03	-1.7E-02	9.9E-02***	4.4E-02
	이전소득	-1.3E-02	-2.4E-02	-4.5E-02	-3.3E-02	-8.2E-03	1.6E-02	5.3E-02*	5.3E-02	-2.1E-02	.10**	-2.9E-02	-2.3E-02
	기타소득	4.2E-03	-1.2E-02	-2.2E-04	-6.5E-03	-1.9E-02	-4.6E-03	3.9E-03	3.3E-02	-3.7E-03	1.5E-03	3.7E-02	.15***
순 자산	7.0E-02**	-5.8E-02	8.1E-02***	2.9E-03	2.0E-02*	3.7E-02*	4.4E-02	9.0E-02	6.7E-02***	5.6E-02	5.7E-02	-.15	

\*p < .05, \*\*p < .01, \*\*\*p < .001

이전소득의 변화는 주거비와 의료비의 지출을 변화시키고 있었는데, 이전소득의 증가에 의료비가 민감한 것은 자가보유가계의 25.7%가 60세 이상의 노인가계임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가계에 lump-sum 형태로 주어지는 기타소득은 자가보유가계의 총소비지출 및 모든 비목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세거주가계를 살펴보면, 총소비지출과 대부분의 지출비목들이 근로소득의 변화에 반응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비와 교양·오락비에 높은 근로소득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가보유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경조비와 같은 선택적 비목들이 식료품비나 전기통신 및 연료비보다 근로소득의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자산소득은 전세거주가계의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며, 이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경조비가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는 기타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는 유일한 비목으로 비교적 선택적인 비목이 기타소득에 더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가보유가계와 전세거주가계는 다른 유형의 가계소득 변화보다 근로소득의 변화에 따라 소비지출을 유의하게 변화시키고 있었고, 근로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별 가계소득의 변화에 그들의 소비지출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자가보유가계의 총소비지출 및 지출비목별 소득탄력성이 전세거주가계의 소득탄력성보다 작는데, 이는 자가보유가계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전세거주가계의 지출증가폭 만큼 빠른 속도로 가계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 2)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순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과거에 축적된 가계의 자산이 소득효과와는 별개로 총소비지출 및 비목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

며, 특히 1980년대 말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급등을 경험한 우리 나라의 경우 그 영향력은 더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가계 순자산의 상승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주거보유형태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자가보유가계의 순자산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순자산이 1% 증가함에 따라 총소비지출이 0.03%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순자산의 효과는 근로소득의 효과보다는 작지만 자산소득의 효과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의 변화에 특히 외식비와 교육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는데, 외식비는 자가보유가계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의 변화와 순자산의 변화에 유의하게 반응하였고 그 민감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비와 더불어 교육비에 순자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진학을 위한 고액의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의 부담으로 인해 축적된 자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교양·오락비와 경조비 그리고 피복 및 신발비도 순자산의 변화에 비교적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와 전기통신 및 연료비 같은 비교적 필수적인 비목들은 순자산의 증가에 덜 민감하였다. 그러나 식료품비의 순자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자가보유가계의 총소비지출 및 비목별 소비지출은 순자산의 증가에 正(+)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고, 특히 외식비, 교양·오락비, 경조비와 같은 상대적으로 선택성이 강한 특성을 지닌 비목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순자산탄력성은 근로소득탄력성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작았으나, 지출비목간 탄력성 규모에 의한 순위는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세거주가계는 자가보유가계와는 달리 총소비지출 및 대부분의 소비지출 비목에 순자산의 변화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순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통신 및 연료비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전세거주가계가 순자산의 증가에 그들의 소비지출을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자가보유에 대한

가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순자산의 증가로 얻게 되는 여유자금을 가계의 소비지출에 소비하는 대신 주택자금으로 따로 마련해두기 때문이며, 전세거주 가계의 56.6%에 해당하는 가계의 가구주 연령이 30대로서 장차 필요하게 될 자녀의 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위해 순자산의 증가분을 저축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세거주 가계의 소비지출에 순자산이 미치는 효과는 자가보유가계보다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주거보유형태별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순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순자산의 규모 그리고 소비지출패턴은 주거보유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비지출패턴을 보면 자가보유가계와 전세거주 가계는 식료품비와 교육비에 그들의 예산을 가장 많이 할당하는 반면, 월세거주 가계는 식료품비와 주거비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소비구조가 특히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가계 유형별 가계소득과 자산은 가계의 소비지출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보유형태에 따라 자가보유가계와 전세거주 가계는 그들의 소비지출을 유형별 가계소득과 자산의 변화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자가보유가계와 전세거주 가계 모두 소비지출이 다른 유형의 가계소득이나 순자산보다 근로소득의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의 변화는 자가보유가계의 소비지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보유가계인 경우는 주거비와 의료비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전세거주 가계인 경우에는 경조비의 지출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에 lump-sum 형태로 주어지는 기타소득인 경우 전세거

주 가계의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지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이었다.

셋째, 순자산은 소득과는 별개로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가보유가계가 순자산의 증가에 가장 민감하게 비목별 소비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었는데, 특히 외식비, 교양·오락비, 경조비와 같은 비교적 선택적인 비목이 더 민감하였다. 자가보유가계의 순자산 효과는 근로소득 효과보다는 작았지만 순자산의 지출비목간 영향력의 크기에 의한 순위는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남으로써 순자산의 증가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소득증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전세거주 가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비지출에 순자산의 변화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달랐으며 특히 소비지출에 미치는 근로소득의 효과는 순자산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고 이는 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Projector, 1968; 양세정·강미나, 199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계의 자산소득과 기타소득이 대부분의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두 유형의 소득증가가 저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뿐 아니라 투자 및 저축유인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월세거주 가계는 매달 지출해야 하는 월세로 인해 형성된 불균형한 소비지출패턴 때문에 복지측면에서 불리한 상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월세거주 가계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그들이 균형있는 소비지출패턴을 형성하여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자료의 특성상 가계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보는 다양하고 정확한 반면, 소비지출에 대한 정

보는 면접타계식이므로 다른 가계부기장방식의 자료보다 상대적으로 실제 소비지출보다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기 쉬워 그 신뢰도가 낮다. 또한 연간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월평균 지출에 12개월을 곱해서 연간지출을 산출한 것으로 비목별 소비지출의 계절성이 고려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에 가계의 소비가 가계구성원의 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국민경제 및 사회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볼 때, 가계의 경제적 특성과 소비지출행동이라는 두 가지 정보가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월세거주가계의 표본크기가 너무 작아서 회귀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고, 자가보유가계의 표본에 농림수산업자 가계나 노인가계 그리고 郡部지역에 거주하는 가계의 비율이 전세거주가계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sampling의 차이가 발생해 자가보유가계의 소비행동을 전세거주가계의 소비행동과 비교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좀더 정교한 sampling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영숙,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2) \_\_\_\_\_ · 왕인숙, 도시가정의 피복류 소비지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7(4), 1989, 21-39.
- 3) 김정숙, 도시 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 분석 -시계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92, 19-36.
- 4) 김정훈, 인구·경제적 변수가 도시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5) 류종구, 도시 근로자가구들의 입주형태별 소득 및 소비지출행태 분석, 경제연구, 12(1), 1991, 159-174.
- 6) 문숙재 · 정순희, 소비지출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편모가족과 양부모 가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6(2), 1995, 53-65.

- 7) 박대근 · 이창용, 유동성제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통계청 제 4회 통계의 날 기념세미나, 1996, 3-30.
- 8) 박상학, 미·일·독과 비교해 본 한국가계의 소비지출행태 -가구주 연령별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경제리뷰, 27호, 1992, 6-22.
- 9) 성영애 · 양세정,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997, 103-117.
- 10) 손상희,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1993, 51-72.
- 11) 양세정 · 강미나, 자산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6(1), 1995, 57-67.
- 12) 윤정혜,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1984, 85-100.
- 13) 이성민,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제 9 호, 1992, 53-60.
- 14) 정영숙, 도서지역과 육지의 소비지출구조와 결정요인 -울릉도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4(1), 1993, 23-38.
- 15) Ando, A. & Modigliani, 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1963, 55-84.
- 16) Dardis, R. Derrick, F., & Lehfled, A.,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1981, 212-222.
- 17) Ferber, R., Consumer economic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1(4), 1973, 1303-1333.
- 18) Friedman, M.,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19) Gujarati, D. N., Basic Econometrics, New York: McGraw - Hill Book Company, 1988.
- 20) Holbrook, R. & Stafford, F., The propensity to consume separate types of income hypothesis, Econometrica, 39, 1971, 1-22.
- 21) Horton, S. W. & Hafstrom, J. L., Income

-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Consumption of female-headed and two-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 1985, 292-303.
- 22) Modigliani, R. & Brumberg, R.,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 Kuribara(Ed.), *Post-Keynesian economics*(pp388-437),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1962.
- 23) Paulin, G. D., A comparison of consumer expenditures by housing tenur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9(1), 1995, 164-198.
- 24) Projector, D. S., *Survey of changes in family finances*, Washington, D.C.: Federal Reserve Board, 1968.
- 25) Shefrin, H. M. & Thaler, R. H., Behavioral life-cycle hypothesis," *Economic Inquiry*, 26, 1988, 609-643.
- 26) Wagner, J. & Hanna, S., The effectiveness of family life cycle variables in consumer expenditure research,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3), 1983, 281-291.